



 국토교통부	<h1>보도 설명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1. 14(목)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	철도투자개발과	담당 자	• 과장 김승범, 사무관 김준수, 주무관 김영조 • ☎ (044) 201-3968, 3986
	건설안전과	담당 자	• 과장 한명희, 사무관 현기창, 주무관 공민규 • ☎ (044) 201-3584, 3576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교통부, 부전 ~ 마산 복선전철 지반침하 사고 관련 원인조사와 신속한 복구작업 적극 대응 중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 1. 14) >

- ◆ 부전-마산 민자터널 붕괴로 인해 '22년까지 연기 예상
- ◆ 정부차원의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지연 우려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지난해 3월 18일 발생한 부전~마산 복선전철*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,
 - * 공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민자사업
 - 사고 발생 즉시 **현장에 출동**하여 사고원인 등 초기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**복구 작업 또한 신속히** 진행되고 있습니다.
-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원인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,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, 국가철도공단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 - 또한, 추가적인 검증을 위하여 **관련 자료를 확보**하고 있으며 이외 사고 원인을 객관적이고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**필요한 조치**를 취할 계획입니다.
- 참고로, 주무관청이 실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지진, 홍수, 해일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제한됩니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김준수 사무관(☎ 044-201-3968), 건설안전과 현기창 사무관(☎ 044-201-358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-